

전북가야의 역사적 가치 밝힌다

도, 장수 삼고리 고분군 발굴현장서 학술 자문회의 개최... 8~10호분 발굴조사 이달 중 완료

전북도는 올해 전북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발굴조사 등 32개의 학술조사에 총 22억원을 투자함에 따라 장수군을 비롯한 전북 동부권 7개 시·군은 4월부터 본격적인 학술조사를 시작해, 그중 하나인 장수 삼고리 고분군 발굴현장에서 지난 24일 오후 4시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수 삼고리고분군은 장수군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유철) 주관으로 작년 이어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시작된 2차 발굴조사는 5월중 완료 예정이다.

장수지역은 마한시대 이래로 백제 문화권에 속했던 곳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1995년 장수 삼고리고분군에서 가야인의 무덤이 발굴됨에 따라 금강 상류지역은 백제에 병합되기 이전까지 가야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고고학적인 단서를 처음으로 알리게 되었다.

이번 조사는 작년엔 진행한 1~3호분의 서쪽 능선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는 8~10호분에 대한 발굴작업으로 지금까지 37기의 무덤군에서 수혈식석곽묘 12기, 토광묘 13기가 조사되었고, 토기류와 철기류를 비롯해 말갈총 등 3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는 성과를 얻었다.

8~10호분에서는 주 매장시설인 수혈식석곽묘가 각각 1기씩 확인되었다. 석곽은 전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고, 장축방향은 능선의 경사면을 따라 두었다. 37기 중 석곽의 규모가 가장 큰 8호분에는 물결무늬가 시문된 목간항아리와 그릇받침 7세트, 장군, 다양한 종류의 철기류가 부장되었다. 특히 장군은 종래 완주 상운리고분군·군산 산월리고분군·서율 동촌토성



장수 삼고리고분군 8호분 석곽 출토유물.

등 마한 및 백제 무덤과 토성에서 주로 출토되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수혈식석곽에서 가야 토기들과 함께 확인되었다.

9호분에서는 뚜껑과 함께 여러 종류의 토기류, 은제고리화 2점과 쇠도끼·쇠화살촉, 재갈과 교구 등의 말갈총이 출토되었다.

문화재청은 지금까지의 조사를 통해 불 때 삼고리고분군은 금강 상류지역에 기반을 둔 가야 토착세력의 무덤으로 볼 수 있다면서 대만, 부장유물 중 백제계·대가야계 양식의 토기류가 혼재되어 있는 바, 이 무덤을 축조한 가야

세력은 5~6세기경에 주변과 활발한 교류 속에서 경제·문화사적 관계를 이루면서 성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운동목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내 7개 시·군에 분포된 가야유적 발굴 및 정비사업 추진으로 전북가야의 역사적 고증을 위해 힘쓰고 있고 앞으로도 전북가야의 가치입증과 홍보를 위해 현장설명 등을 통해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각시다리 전설, 정읍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장명동 각시다리 음악회 성료... 시 낭송·품바·마술공연 등 다채

정읍시가 지난 24일 각시다리공원 특설 무대에서 '제1회 장명동 각시다리 음악회'를 열었다.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음악회는 장명동의 전설, 옛 지명 씨교동의 씨교(氏橋, 각시다리)를 널리 알리고 장명동 주민들의 소통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각시다리연가 시 낭송과 품바, 마술공연 등의 이색적인 공연과 더불어 박애리, 국악신동 김태연 등이 흥겨운 공연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을 주관한 장명동 주민자치위원회 오명규 위원장은 "각시다리 음악회를 계기로 각시다리 전설 관련 콘텐츠가 장명동을 넘어 정읍시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 개발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철성 시장은 "각시다리 음악회를 통해 주민들이 짧게나마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집단두뇌가 만든 신인간 '호모사피엔스, 그 성공의 비밀'

"이 비범한 책은 다음 세대 사회과학 연구를 근본적으로 모양 지을 현 패러다임 최초의 포괄적 성명서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 제임스 A 로빈슨(60)은 '호모 사피엔스, 그 성공의 비밀-문화는 어떻게 인간의 진화를 주도하며 우리를 더 영리하게 만들어왔는가'를 이렇게 설명한다.

저자 조지프 헨리는 문화가 '사람속' (현생인류와 그 직계 조상을 포함하는 분류)을 완전히 다른 '신종 동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문화와 유전자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진화했는지를 설명한다. 집단두뇌의 누적된 문화적 진화로 풀어내는 심리와 행동의 본성, 그리고 그 놀라운 성공의 비밀이다.

집단두뇌가 우리 종의 유전적 진화를 추동하며 우리의 생물학을 조형해왔다고 역설한다. 길 잃은 유럽인 탐험가들, 영리한 침팬지, 이동하는 수렵채취인, 신경과학 연구, 오래된 뼈, 인간 유전체 모두를 넘나들며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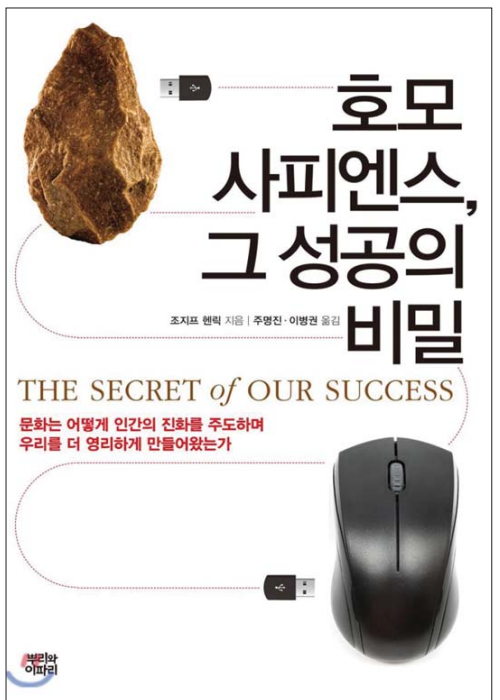
사람속은 남들에게 배우기 위해 필요했던 능력들을 통해 수많은 문화적 혁신을 낳았다.

그 결과인 불과 조리, 물통, 식물 지식, 발사 무기 등은 차례로 뇌의 확장을 주도하며 생리, 해부구조, 심리를 결정적으로 바꿔놓았다. 나아가 일부 집단두뇌들은 지레와 바퀴, 나사, 문자 같은 강력한 개념들을 낳고 또 재조합했다. 그러는 동안 제도과 사회규범들은 계

속해서 우리의 동기와 지각을 바꾸어왔다.

지은이 조지프 헨리는 하버드 대학의 인간 진화생물학 교수다. 동시에 문화·인지·공진화 분야 캐나다 석좌연구자 '캐나다 리서치 체어' 자격으로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에서 심리학과와 경제학과 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책은 총 17장으로 구성됐다. 주명진·이병권 옮김, 656쪽, 2만1800원. /뉴스



오래 앉아있는 것은 제2의 흡연... '매력적인 뼈 여행'

종일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책이 '매력적인 뼈 여행-몸의 기동, 뼈에 대한 놀라운 지식 프로젝트'다. 독일의 정형외과 전문의 하노 슈테켈의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하루 30분 건강 스트레칭을 담았다.

독일인은 하루 평균 7~9시간을 앉아서 보낸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책상에 앉아 있거나, 컴퓨터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다. 한국인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저자는 "오래 앉아있는 것은 제2의 흡연"이라고 경고한다. 현대인들의 이러한 생활 습관이 고혈압을 비롯해 당뇨, 허리통증 등을 부추기고 나아가 수명을 단축한다고 주장한다.

"뼈와 관절, 근육 등으로 이루어진 운동계는 우리의 자세를 담당하고, 주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외관을 책임진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 상태도 거울처럼 비추준다. 하지만 평소 대부분의 사람이 운동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

뼈는 관절, 근육 등과 더불어 운동계를 구성하는 중대 요소다. 아주 작은 뼈라도 저마다 쓰임새가 있다. 몸속 뼈를 머리뼈, 척추, 흉곽, 팔뼈, 다리뼈 등으로 세분해 각각의 특징과 중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뼈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일러스트 이미지를 추가해 이해를 돕는다. 또 뼈와 함께 운동계를 구성하는 관절과 근육의 구조와 기능, 뼈와 관절과 근육의 상호작용 과정과 결과도 자세하게 설명한다. 뼈가 몸의 기동으로서 기능한다면, 관절과 근육은 몸을 움직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관절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원활유 역할을 하는 연골과 근육의 힘을 뼈로 전달하는 힘줄까지 아울러 설명한다.

총 5장 22절로 구성됐다. 파트 1(뼈, 관절, 연골), 2(근육, 인대, 힘줄), 3(뼈에 관한 기초 지식), 4(인생 사이클과 뼈 건강), 5(가장 흔한 질병) 배명자 옮김, 364쪽, 1만6000원, 와이즈 배리. /뉴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